



오인철 회장 올림픽 후원금 전달

오인철(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12일 중소기업 사랑나눔 재단을 방문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건협 강원도회,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금 기탁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12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5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경제계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부족한 운영자원 30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모금에 나선 상태다. 도회는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이날 중소기업



사랑나눔 재단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왼쪽 두 번째)이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SOC 인프라 예산 축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유 회장을 비롯한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대표들은 SOC인프라 예산 삭감에 우려를 표명하며 내년 예산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로 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윤수기자 ays77@

“건설이 곧 복지이자 일자리다” ‘SOC 투자 정상화’ 강력 호소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가 경제,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SOC(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데 대해 건설업계가 하나로 뭉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등 5개 건설단체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OC 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로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관련기사3면

정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삭감 폭(4조4000억원)으로는 역대 최대이며 총액으론 2004년 이후 최저

건설협회 등 5개 단체 “내년 SOC예산 20%삭감 철회” 촉구
“노후 인프라 개선 미루면 국민안전 위협… 미래 위한 투자”

수준이다. 더구나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씩 감축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SOC 예산 축소가 복지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SOC 투자가 교통 편리성 제고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1인당 도로 총연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꼴찌다. 이로 인해 교통혼잡비는 33조4000억원(2015년), 물류비는 145조8000억원(2013년)이 소요된다.

일자리 감소도 SOC 투자 삭감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지목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일

자리가 1만4000여개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0.06%포인트 줄어든다. 강영길 건설협회 실장은 “내년 SOC 투자가 4조4000억원 삭감되면 경제성장률은 0.3~0.5%포인트 감소하고 최대 6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가 빨라진 가운데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인프라 시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공급돼 노후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진·집중호우 증가 등 기후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유주현 건설협회 회장은 “내년

도 SOC 예산이 17조7000억원으로 삭감돼 확정되면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는 물론이고 경제성장을 3% 달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SOC 인프라 투자는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기자회견에 이어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SOC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SOC 예산 감축과 부동산 복합규제로 건설업계는 고사 직전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SOC 예산 정상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외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